박원자의 母情佛心 ⑫ 경국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출가 5년차인 경국 스님의 어머니는 시어머니, 남편, 자녀 2명을 모두 출가시켰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출가한 것이다. 출가한 가족들을 위해 어머니는 "수행자다운 수행자로 살아가라"고 기원한다.

"수행자다운 수행자가 되세요"



그림 · 박구원

출가 5년차인 경국 스님을 BTN불교TV 화면에서 처음 보았다. 밝고 경쾌했다. 그러면서도 수행자의 위의가 서려있었다. 맞아, 어쩌면 출가란 저렇게 경쾌한 길인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님을 어느 찻집에서 만났다. 생각보다 더 유쾌하고 늠름했다.

"처음 출가했다가 다시 돌아와 몇 년 뒤 출가했는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보니 출가를 너무 거창하고 무겁게 생각했더라고요. 출가가 뭐 별건가 어디에 있던 부처님처럼 살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출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 우리는 모든 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있다. 그래서 삶이 무겁다. 한 생각 돌이켜 내려놓으면 되는데, 생각을 들고 있느라 힘들다. 젊은 경국 스님은 이미 그걸 알아챘고, 그래서 경쾌한 발걸음으로 산문에 들어선 것이리라.

함께 모시고 나온 어머니를 뵈니 경국 스님의 경쾌한 출가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더 분명해보였다. 몇 시간 함께 있는 동안 한국불교의 앞날이 밝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엄마로서도, 재가수행자로서도 새롭게 발심이 된 시간이었다.

경국 스님의 어머니 고성희 여사는 시어머니, 남편, 자식 둘 모두가 출가하는 특별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일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전생에 수행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족으로 만났다가 다시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20살 즈음에 대학생이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그런데 자신보다 한 살 더 많은 이 남자는 만나면 부처님 이야기뿐이었다. 팔만대장경을 다 읽은 것 같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로 사람다운 일을 하고 가신 훌륭한 분이라고 했다. 사랑으로 충만한 따뜻한 분으로 누구든 보듬어 주고 안아주었으며, 자신을 내세움 없이 가장 아래에 서서 중생에게 맞추어 주고 순종하신 분이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면서 사람은 부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다. 매번 재미있고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차츰 내면 저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부처님처럼 멋있는 인간이 되어보자.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저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는 마흔 살이 되면 출가할 것이라고 했다. 당연하다고 여겼다. 나는 내 인생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살 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7, 8년 연애 끝에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았다. 남편은 출가하기 전에 남은 식구들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다. 연탄장사, 책장사, 슈퍼마켓, 중국집 등을 열어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큰 아이가 일곱 살 때 출가를 단행했다. 출가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해야 부처님처럼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떠나보냈다.

"이번 생에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부처님처럼 최고로 잘 살다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큰 아들인 경국 스님이 일곱 살 때였다.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았다. 육신이 건강하니 무엇이든 해서 아이들을 키울 것이라 생각했다. 언제나 사는 것을 걱정해보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걱정이 있다면 '어떻게 부처님처럼 살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다. 돈을 많이 지니고 싶은 생각도, 잘 먹고 싶은 욕망도 없었다. 세상에 라이벌이 있다면 부처님 한분이었다. 그분처럼 사는 것 말고는 다른 욕망은 없었다. 남편에게서 배운 정견이었고 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어머니께서 출가하려는 아버지께 부처님 시줏돈으로 자식들을 키울 거면 속가에 있고 수행할 거면 출가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부재한 속에서도 자식들은 사랑이 많은 아이들로 잘 자랐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출가한 충주의 할머니 절에서 크며 자연스럽게 법당을 드나들었다. 염불하시는 할머니 곁에서 유년 시절과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는 하던 장사를 접고 사찰 사무장 겸 공양주로 사찰에 와있었다. 집이 사찰이었던 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동네아이들을 데리고 노는 골목대장이었다. 산 밑에 사는 친구 어머니들이 '사탄의 집에 놀러가지 말라' 고 경계했어도 뛰어 노는 데 정신이 팔려 세상이 즐겁기만 했다.

그렇듯 건강하게 뛰놀던 아들이 중학생이 되자 사춘기를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절에서 나와 시내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을 때였다. 툭하면 이유 없이 아들이 집을 나갔다. 공부는 뒷전이었으니 고등학교 입시에 낙방을 하고 말았다. 어머니는 그때까지 누구나 겪는 사춘기라고 생각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잔소리를 거두어 입을 닫았다. 기도하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재수를 하던 아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머리를 노랗고 빨갛게 물들인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아들을 데리고 어느 날, 시퍼런 강물이 내려다보이는 절벽으로 갔다.

> **시모, 남편, 자녀 모두 출가해**
> **충주시모 사찰서 자녀를 양육**
> **방황하는 아들 믿음으로 갱생**
> **"부처님처럼 살아가라"고 충고**

"어머니께서 음료수병을 꺼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절에 계시면서 사람들이 잘 되도록 축원해주는 스님이시고, 아버지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법사로 대중을 교화하고 계시는데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방황하니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네가 이렇게 살면 사회에도 불필요한 존재가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럴 바엔 차라리 나랑 같이 여기서 떨어져죽자. 싫으면 이거 먹고 같이 죽자.'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날로 격렬했던 사춘기가 끝나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 법학을 전공하고 고시공부 끝에 취업해 있던 어느 날, 드디어 출가를 하겠다고 선포했다. 갈 길을 찾은 것 같아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 스님도 기뻐했다.

스무 살이 넘어 만난 아버지 스님은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인도도 다녀오고 정리할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45일 동안 인도 배낭여행을 다녀온 후 자신이 불법과 인연이 깊음을 확신하고 출가를 단행했다.

그러나 아직 인연이 아니었을까. 집에서 가장 먼 해남 미황사로 갔던 아들은 사흘 만에 절을 나왔다. 다시 사회로 돌아가 1년 반 정도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와 그간의 일을 이실직고하고 이번엔 출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출가한 줄로만 알고 있던 어머니의 실망은 대단했다. 무슨 일을 해도 경험해봐야 한다면서 지원해주던 어머니는 아들이 보기 싫다면서 앓아 누웠다. 생전 처음 본 어머니 모습이었다.

그러던 차에 동생이 출가했다. 불교학을 전공하고 복지관계 일터에서 열심히 살던 여동생은 더 행복한 길을 찾아가겠다며 주변을 정리하고 떠나갔다. "엄마, 나 갈 게요"하고 마치 이웃집 가듯 손을 흔들며 딸이 출가하던 날 어머니는 평상시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운동을 하러 나갔다.

"출가하던 안 하던 나는 진짜 오빠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정신이 번쩍 났다. 다시 세속으로 돌아와 직장생활을 하면서 고뇌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두고 얼마나 고뇌했던가. 돈을 버는 일도 그다지 즐겁지 않고 세속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동생이 출가하고 두 달 뒤, 이번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절을 찾아갔다. 거기서 은사를 만났고 '경국(慶國)' 이란 법명을 받고 오랜 생을 걸었을 출가의 길로 들어섰다. 아버지 스님은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 길을 가라' 고 하셨고, 어머니는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라' 고 축하해주었다.

그리고 다음해 아들과 딸은 나란히 행자교육원에서 행자교육을 받고 계를 받았다. 딸스님은 졸업과 동시에 치러지는 5급 승가고시에서 수석, 아들스님은 4년 뒤 중앙승가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출가를 응원, 지지했던 부모님에게 효도했다.

"수행자다운 수행을 하면서 중생들과 함께했던 부처님처럼 살기를 바랄뿐입니다."

이 네 식구들이 모이면 온통 부처님 이야기뿐이다. 마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털어놓으면서 이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 나면 어려운 일들은 물 흐르듯 지나가 버린다. 수행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아버지 스님의 법문도 듣는다. 서로를 보면서 활력소를 얻고 새롭게 발심한다.

"각자가 다 부처님이죠. 제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지내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에 아들스님이 화답했다.

"힘들게 느껴질 때 어머니는 존재 자체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평생을 부처님처럼 사시겠다는 한마음으로 꿋꿋하게 삶을 일구어 오신 어머니를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한결같이 자식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출가의 길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수행자처럼 정진하고 사시죠. 어머니는 제게 인생의 스승이자 도반이고 든든한 지원자이시죠."

두 분과 헤어져 돌아오면서 태산보다 더 큰 어머니의 품에서 성장한 경국 스님의 10년 후, 그리고 더 이후의 경국 스님의 모습이 어떨까 궁금해졌다. 어머니가 늘 꿈꾸었던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 있을지 궁금한 것이다.

〈작가〉

힐링하는
자비의 한 걸음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최첨단 특수극세사원단을 사용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관절과 무릎을 보호하고
피로도 감소 및 미끄럼 방지 등 안전 보행을 약속합니다.
에르코스의 최첨단 기술과 자비의 마음을 담아
내구성이 뛰어나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er ercohs 에르코스 포행화

무료주문전화 080-848-7777
불교신문 기획사업부 02-730-4489(단체주문)

